

# 日本에서의 『明心寶鑑』과 『太上感應篇』의 思想上的 比較檢討

成 海 俊\*

## • 目 次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兩書의 日本에서의 受容上の 比較 |
| 2. 思想上的 異同(類似點) | 5. 맺음말               |
| 3. 思想上的 異同(相異點) |                      |

## 1. 들어가는 말

『명심보감』은 중국 明代의 勸善書의 하나로서 1393년 范立本에 의해 편찬·간행되었다. 한편 『태상감응편』은 『명심보감』이 출판되기 이전인 南宋초기의 勸善書로서 李昌齡에 의해 編纂·刊行되었다.<sup>1)</sup> 『태상감응편』은 民衆道敎의 聖典이자 중국 善書의 基本書로 알려져 있다. 이 『태상감응편』과 같은 계통의 『陰騭錄』·『功過格』도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勸善思想을 論하고 있다. 또 이들 勸善書와는 異質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심보감』도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태상감응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 『태상감응편』과 『명심보감』이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7)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태상감응편』과 『명심보감』이 일본에 처음 전래된 것은 양쪽 모두 무로마찌시대(室町時代·1336~1573)이다. 그러나 『명심보감』

\* 동명정보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교수

1) 『태상감응편』의 編纂者로서 「老子」나 「葛洪」의 撰述이라는 설도 있지만 南宋의 「李石」과 「李昌齡」이 1164년경에 소개 한 후 세상에 알려진 점으로 보아 그의 撰述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의 본격적인 수용은 江戸時代 前期이며 後期에는 그다지 읽혀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태상감응편』의 본격적인 수용은 江戸時代 中期부터이며 그후 메이지시대(明治時代)까지도 많이 읽혀졌다.

일본의 『명심보감』은 江戸時代 전기에 위정자나 지식인에게 많이 읽혀졌다.<sup>2)</sup> 이에 비해 『태상감응편』은 江戸時代 中期以後에 민중들에게 많이 읽혀졌다. 그것은 재야의 지식인에 의한 注釋書가 편찬되어 민중들의 일상생활에도 普及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나카에 토쥬(中江藤樹·1608~1648, 江戸時代 전기의 儒學者이며 陽明學者)의 문하생들이 『태상감응편』을 매일 아침 拜誦하거나 조상의 靈前에 모시는 등 일부 지식인들의 생활 속에서 그 사상이 실천되었다.<sup>3)</sup> 江戸時代 후기가 되면 『태상감응편』에 기술되어 있는 庚申신앙의 의식이 상업의 번성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 사상이 擴散·실천되었다. 또 『태상감응편』의 존재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그 勸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의해 자식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얻게 하고 질병을 고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낫게 하는 현세이익신앙이 농민층을 중심으로 민중에게 널리 침투되어 정착했다.<sup>4)</sup>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2) 『명심보감』의 思想 및 日本文化에 미친 影響에 관해서는 拙稿 ①「『明心寶鑑』이 日本文學에 미친 影響」(『日本文學』45号, 日本文學協會 編, 1996年 6月)과 ②「江戸時代の 勸善書『明心寶鑑』의 受容과 變容」(타마카케 히로유키 <玉懸博之> 編『日本思想史 - 普遍과 特殊』日本 ぺ리칸社 發行, 1997年 7月)에 詳細하다.

3) 기무라 미츠노리(木村光徳)씨 『日本陽明學派의 研究 - 藤樹學派의 思想과 그 資料』, 明德出版社, 1986년)에 의하면 도쥬(藤樹)의 門下生들이 『태상감응편』을 배송하며, 靈前에 올린 적이 있다(<會津學派>, 234, 297頁). 또 히로세 단소(廣瀬談窓·1782~1856, 江戸後期の 折衷學派 儒學者)는 제자들에게 善書를 講讀시키면서 자신도 일상생활을 善書의 가르침에 따라 행했다고 한다.

4) 『태상감응편』은 민간신앙 중 庚申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江戸時代 大庚申의 날에는 저녁부터 사람들이 한집에 모여, 간단한 祭祀를 올린 후 음식을 먹으며 첫닭이 울 때까지 놀이나 잠담을 하며 지냈다. 窪徳忠씨(『道教의 世界』, 學生社, 1987년)에 의하면, 庚申信仰의 원류에 대해, 에도시대에서 明治時代에 이르기까지는 중국에서 전해져 왔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지만, 1935년경, 民俗學者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國男·1875~1962)에 의해 日本고유의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 이후 柳田國男의 說을 따르는 일본 민속학자들에 의해 『태상감응편』과 관계 깊은 庚申신앙의 중국 전래설은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일본 고유의 설이 지배적이었다(245頁).

의하면 『명심보감』에서는 그와 같은 예가 보이지 않는다.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에 이러한 독자층 및 수용상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물론 江戸時代 전기와 후기의 사회나 사상·정치상황의 변화에 의한 「天」의 관념·知足安分에 대표되는 사람들의 생활의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요인 이상으로 필자는 善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天」의 사상의 相異, 나아가 운명·숙명관이나 응보관의 相異라고 하는 내적 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두 서적은 각자 다른 사상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회계층, 서로 다른 수용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江戸時代 민중의 윤리·도덕에 있어서 善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sup>5)</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의 사상을 비교하여 근세 일본에 있어서 두 서적이 서로 다른 수용방법을 택한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勸善書의 일본에서의 사상적 의의도 규명하고자 한다.

## 2. 思想上的 異同 (類似點)

『명심보감』은 보다 앞서 편찬된 『태상감응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서로

---

庚申塔·治病·長生 등 庚申의 이익은 다양하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풍작, 어촌에서는 大漁, 도시에서는 상업번창을 불러온다고 하며, 또 전국적으로는 病魔를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이 퍼져 있다.

5) 선행연구로서는:

- ①吉岡義豊『道敎의 研究』(法藏館, 1952년).
  - ②酒井忠夫『中國善書의 研究』(弘文堂, 1960년)1, 2, 361頁.
  - ③酒井忠夫『道敎의 綜合的 研究』(國書刊行會, 1977년)381頁.
  - ④秋月觀暎『中國近世의 道敎 形成』(創文社, 1978년).
  - ⑤秋月觀暎『道敎와 宗教文化』(平河出版社, 1987년)5頁.
  - ⑥下出積與『江戸時代に 있어서 農民과 善書 -『太上感應篇 靈驗』에 대하여-』(笠原一男博士 還曆記念會編『日本宗教史論集』下卷, 吉川弘文館, 1976) 251頁.
  - ⑦窪徳忠『道敎史』世界宗教史叢書 九(山川出版社, 1977년) 등이 있다.
- 지금까지의 연구의 대부분은 中國哲學上에서의 입장이며, 日本思想史上에서의 研究는 적다. 특히 善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思想의 相異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상적으로도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태상감응편』과 명확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天의 사상을 논하는 부분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인 면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史料에 근거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 『太上感應篇』과 『明心寶鑑』과의 關係

『태상감응편』의 중심이 되는 사상을 들어 『명심보감』과 비교·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① 太上曰，禍福無門，唯人自召，善惡之報，如影隨形。  
(『태상감응편』의 머리말 부분. 『명심보감』의 「繼善篇」에 인용되어 있다.)
- ② 夫心起於善，善雖未爲，而吉神已隨之，或心起於惡，惡雖未爲，而凶神已隨之，其有曾行惡事，後自改悔，諸惡莫作，衆善奉行，久久必獲吉慶，所謂轉禍爲福也。故吉人語善視善行善，一日有三善，三年天必降之福，凶人語惡視惡行惡，一日有三惡，三年天必降之禍，胡不勉而行之。(『太上感應篇』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명심보감』의 「繼善篇」에 인용되어 있지만 「故吉人語善」 이하는 『명심보감』의 「序文」과 「繼善篇」에 나누어 인용하고 있다.)

『태상감응편』에서는 신의 監察에 의한 응보를 강조하고 있다. 善에는 행복을, 惡에는 재앙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선악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神으로부터의 상벌이 있다. 그것은 「吉人」·「凶人」이 각자 선악을 말하고, 보며 행하는 것에 대해서, 天(神)이 각자의 행동에 相應하는 禍福의 상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禍福은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행하여 陰德을 쌓고 謙謹을 더하면 善의 報答을 받고, 재앙을 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에 의해서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상감응편』의 사상은 다음의 ③의 자료와 같이 불교의 「諸惡莫作 衆善奉行」이 생략된 형태로 『명심보감』본문의 최초의 篇인 「繼善篇」에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諸惡莫作, 衆善奉行」이 생략된 것에는 큰 사상적 의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고찰 할 예정이다.

『태상감응편』의 기술 내용을 『명심보감』의 「繼善篇」과 「序文」에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 두 서적의 내용을 고찰하기로 하자.

③ 「太上感應篇曰, 禍福無門惟人自招, 善惡之報如影隨形」

「所以人心起於善, 善雖未爲, 而吉神已隨之, 或心起於惡, 惡雖未爲, 而凶神已隨之. 其有曾行惡事, 後自改悔, 久久必獲吉慶. 所謂轉禍爲福也.」

(『명심보감』「계선편」, 41條. 이 인용은 『명심보감』「계선편」의 끝에 연결된 부분이다. 그러나 『태상감응편』에서는 오른쪽에 「」괄호를 붙인 것과 같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있다.)

④ (前略) 伏觀太上感應篇曰, 故吉人語善視善行善, 一日有三善, 三年天必降之福. 凶人語惡視惡行惡, 一日有三惡, 三年天必降之禍(後略). (『명심보감』의 「序文」)

위의 인용문은 선악행위에 대해서 「天」 혹은 「神」에 의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명심보감』「계선편」에는 그 외에 이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이 있다.

1. 子曰, 爲善者天報之以福, 爲不善者天報之以禍.(『명심보감』「계선편」1조)
2. 尙書云, 作善降之百祥, 作不善降之百殃.(「계선편」2조)
3. 徐神翁曰, 積善逢善, 積惡逢惡, 子細思量, 天地不錯, 善有善報, 惡有惡報, 若還不報時辰未到.(「계선편」3조)
4. 尙書云, 作善自福生, 作惡自災生, 福在積善, 禍在積惡.(「계선편」5조)
5. 易云,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계선편」9조)
6. 易曰, 出其言善, 則千里應之, 出言不善, 則千里外違之.(「계선편」22조)

위와 같이 『명심보감』「계선편」의 勸善思想은 「天」 혹은 「神」이 「善」에는 善, 「惡」에는 惡이라는 형태로 인간행위의 선악에 대해서 정확한 상벌을 내린다는 것을 論하며 善을 권장하고 있다. 즉 좋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보답이 주어

지며,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응보가 주어진다는 것을論하고 있다. 이 『명심보감』의 「계선편」에서는 「天」, 혹은 「神」이 인간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여 禍福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선악의 상벌을 판정하는 것은 자기자신이나 주위 인간이 아닌 「天」이나 「神」이며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심보감』 「계선편」만을 볼 경우 이미 자료 1의 ③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불교적인 어구가 缺落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태상감응편』과 같은 見解이다.

그러나 『태상감응편』의 아주 상세한 「神」의 감찰에 의한 인간의 선악행위에 대한 상벌수여의 실체는 『명심보감』의 응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論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태상감응편』과 『명심보감』의 사상적 관련에 주목하면서 양서의 相異점을 「天」, 혹은 「神」에 의한 應報觀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겠다.

## (2) 『太上感應篇』과 『明心寶鑑』의 應報 및 勸善觀

『태상감응편』에서는 인간의 체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神」이 역할을 分擔하여 인간 생명의 年數인 「紀」와 日數인 「算」을 增減한다.

- ⑤ 是以天地有司過之神，依人所犯輕重，以奪人算，算減則貧耗，多逢憂患，人皆惡之，刑禍隨之，吉慶避之，惡星災之，算盡則死。（『太上感應篇』）
- ⑥ 凡人有過，大則奪紀，小則奪算，其過大小，有數百事，欲求長生者先順避之。（『太上感應篇』）

禍福의 응보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스스로 행한 선악에 의한 것으로서, 사람이 행한 죄의 輕重에 의해서 수명의 길이를 줄이는 크고 작은 災殃이 있다. 그 크고 작은 災殃에 의해 수명의 날수가 줄면 태어날 때 정해진 생명 연수에서 수명이 줄며, 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 여러 가지의 재앙이 따른다.

惡神에 의해 생명의 수를 빼앗기게 되지만 그 재앙에는 크고 작음이 있다. 즉 크게는 紀(삼백일), 작게는 算(1일 또는 3일)의 생명의 수를 빼앗는다. 사람의 수명의 연수는, 120세로서 日數로 하면 43200일이라고 하는 것이 『河圖紀命符』

의 설이다. 인간의 선악행위가 120살을 기준으로 해서 수명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또 인간의 생명을 가감하는 因子인 죄의 크고 작은 數도 수백 종으로 아주 상세히 분류되어 있다.<sup>6)</sup>

이들의 善惡功過는 天地의 三尸神·竈神 등의 신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인간의 죄상을 조사해 天神에게 上奏하는 것에 의해 수명이 좌우된다. 인간의 체내에 있다고 하는 三尸는 형태는 없지만 靈的 존재로서 인간이 죽으면 三尸는 귀신이 되어 마음대로 뛰쳐나와 祭禮儀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한다.

또 三尸는 庚申의 날이 되면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과실을 司命의 신에게 고하지만, 竈神도 三尸와 같이 그믐날(晦日)에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죄를 전한다고 한다.<sup>7)</sup>

그 司命·三尸·竈神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신령의 일종으로서 이들이 「天」에게 보고하는 것에 의해 인간의 수명이나 禍福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수명이나 화복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天人感應說을 바탕으로 한 「天」의 사상은 위정자보다는 서민의 민간신앙과 관련되어 주로 서민에게 받아들여져 왔다.

「天」의 최고신, 즉 玉皇 밑에 「司過의 神」이나 「三臺北斗神君」 등의 神이 사람의 紀算을 빼앗는다고 하므로 벌을 내리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神」이다.

⑦ 又有三臺北斗神君，在人頭上，錄人罪惡，奪其紀算。又有三尸神，在人身中，每到庚申日，輒上詣天曹。言人罪過，月晦之日，竈神亦然(『太上感應篇』).<sup>9)</sup>

6) 『道教 第1卷 道教란 무엇인가』, 平河出版社, 1985년의 한국어 역본 民族社出版, 1990년, 130頁 참조.

7) 窪德忠씨의 『道教史』(世界宗教史叢書 九, 山川出版社, 1977년) 참조.

8) 『태상감응편』의 운명관에 대해서는 이미 오가와 요우이치(小川陽一)씨가 「明代 小説과 善書」에서 「天」(神)이 運命의 최종적 결정에 이르러 그 사람의 행위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하므로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日用書類에 있어서 明清小説의 研究』, 研文出版, 1995년, 326頁)

9) 이러한 功過사상의 대표로서 『抱朴子』를 들 수 있다. 「行惡事，大者司命奪紀，小過奪算，隨所犯輕重，故所奪有多少也。凡人之受命得壽，自有本數，數本多者，則紀算難盡而遲死。若所稟本少而所犯者多，則紀算速盡而早死。」(『抱朴子』內篇 卷三 大俗).

또 다음의 자료에서는 죄가 행위자 본인의 命數를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만 그렇게 해도 행위자에게 여죄가 있으면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개인의 선악행위의 영향이 본인이 죽은 후에도 자손에게 남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⑧ 如是等罪，司命隨其輕重，奪其紀算，算盡則死，死有余責，乃殃及子孫，又諸橫取人財者，乃計其妻子家口以當之，漸至死喪。(『太上感應篇』)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명심보감』도 이와 같이 죄가 행위자 본인에게 멈추지 않고 가문이나 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繼善篇，9조」). 그러나, 죄를 조사·파악하는 것과 응보면에서 보면 『태상감응편』보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태상감응편』에서는 응보가 보다 엄밀히 분류되어 인간자신의 身體 속 또는 가정 안에 있는 神이 상세하게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고 그 감찰의 결과에 따른 應報이기 때문이다.<sup>10)</sup>

「按易內戒及亦松子經及河 記命符，皆云，天地有司過之神，隨人所犯輕重，以奪其算，算減則人貧耕疾病，屢逢憂患，算盡則死，諸奪算者，有數百字，不可具論。又言，身中有三尸，三尸之爲物，雖無形而實魄靈鬼之屬也，欲使人早死，此尸當得作鬼，自放縱遊行，饜人祭耐。是以每到庚申之日，輒上天白司命，道人所爲過失。又月晦之夜，神亦上天白人罪狀，大者奪紀，紀者三百日也，小者奪算，算者三日也(或作一日)」(『抱朴子』內篇 卷六 徵旨의 易內戒)

이런 견해는 중국 고대, 神仙道家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司過의 神·竈神」등은 道教나 民間信仰에서도 등장하는 神들이다. 특히 神은 道教에서는 고대로부터 집안의 神인 一竈神의 신앙이 조직화되어 太上, 훨씬 뒤에는 玉皇의 이름으로 불리는 道教의 최고신의 使者로서의 기능을 했다. 서민에게 믿음을 얻어 집안의 불 씨(火元)의 神으로서 明代까지 祀典에서 小祀에 속했다. 『抱朴子』에 나타나 있는 이 도덕의식·善惡계산의 견지는 唐代에는 일반민중에게도 넓혀져, 宋代의 感應篇에서는 드디어 민중사회에 침투하여 민중 일반의 일상생활의 규범에 대한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以上은 酒井忠夫씨의 『中國善書의 研究』(弘文堂, 1960, 361頁)참조.

10) 『태상감응편』에서는 인간의 善惡에 대한 賞罰이 행위자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近世 日本人 사이에 광범위하게 침투·수용된 사상이기도 하다. 이것을 지적한 例로서 오스미 카즈오(大隅和雄)씨의 논문이 있다. 大隅和雄씨에 의하면 선조의 행위가 因果라고 하는 형태로 각 가정의 혈통가운데 나타

『명심보감』에서는 「天」이 인간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禍福을 내린다. 한편 『태상감응편』에서는 인간 주위의 神이 인간의 선악 일거일동을 감찰·기록하여 「天曹」의 최고신인 玉皇에게 보고한다. 玉皇은 인간의 선악 행위를 보고 연말에 총결산하여 다음해의 화복을 결정하기 위해 부하의 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선악의 판결을 내린다. 그 결과 인간에게 생명의 「紀算」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태상감응편』에 있어서 勸善思想의 중심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다음에 고찰해 보도록 하자.

- ⑨ 欲求長生者，先順避之，是道則進，非道則退，不履邪徑，不欺暗室，積德累功，慈心於物，忠孝友悌，正己化人，矜孤恤寡，敬老懷幼，昆虫草木，猶不可傷，宜憫人之凶，樂人之善，濟人之急，救人之危，見人之得，如己之得，見人之失，如己之失，不彰人短，不衒己長，遏惡揚善，推多取少，受辱不怨，受寵若驚，施恩不求報，與人不追悔(『太上感應篇』).<sup>11)</sup>

평안무사로 장수를 원하는 자는 먼저 음덕을 쌓아야만 한다. 그 陰德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 慈愛를 베풀며 「忠孝友悌」로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또 타인의 「善」을 즐거워하고 타인의 危急을 구해주며, 자기자신의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 타인을 교화시키는 등 자기를 위함이 아닌 주위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함이어야 한다. 특히 『태상감응편』勸善의 주 내용은 孤兒·寡婦·老人·幼兒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며, 타인의 危急을 도와주는 것이다. 항상 타인을 위해 善을 베풀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중요시한다.

---

난다. 선조의 뛰어난 공덕이 자손을 지켜주고, 선조의 악행은 자손을 멸하는 형태로 因果의 理法이 확실히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집안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大隅和雄 「因果와 輪廻에 관한 日本人의 宗教意識」 『大系佛敎와 日本人』 4, 因果와 輪廻, 春秋社, 1986년).

- 11) 『태상감응편』에서 「惡」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서 언급한 행동과 정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문의 자료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見他榮貴，願他流貶，見他富有，願他破散，見他美色，起心私之，無故殺龜，打蛇。」(『太上感應篇』)

또 『명심보감』의 「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상감응편』은 「神」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天地자연의 만물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식물이나 작은 곤충류에 이르기까지의 「지극히 약한 者,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천지의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유 없이 함부로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sup>12)</sup>.

『태상감응편』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을 비롯하여 天地 자연만물에 「善」을 행하는 것에 의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고 그 결과 저절로 자신에게 福이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⑩ 所謂善人, 人皆敬之, 天道祐之, 福祿隨之, 衆邪遠之, 神靈衛之, 所作必成, 神仙可冀. 欲求天仙者, 當立一千三百善, 欲求地仙者, 當立三百善.(『太上感應篇』)

『태상감응편』의 勸善은 ①천지에 있는 司命의 신이 인간의 행위, 마음의 선악을 감찰하여 그것에 맞는 생명과 관계된 화복을 준다. 즉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한 인간행위의 선악의 판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자신의 운명은 자기자신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②『태상감응편』의 최종목적은 仙人이 되어 不老長壽를 얻는 것, 즉 善을 쌓음에 의해 이 세상에서 인간의 형태를 한 神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에 비해 『명심보감』은 ①人間이 받는 禍福이 인간 행위의 善惡의 결과라는 관념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인간의 운명·吉凶禍福은 처음부터 天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관념도 강하다. ②善의 목적도 인간이 해야 할 도덕을 쌓아 덕망이 있는 현인·군자, 나아가 「聖人」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은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이 善書로서 공통된 면을 가지면서도 서로 상반되는 사상적 요소를 가진 점을 고찰하였다. 이하에서는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의 사상상의 명확한 차이점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2) 이시가와 우메지로(石川梅次郎)씨에 의하면 (『陰鸞錄』 明德出版社, 1970년, 17頁 이하 참조). 이러한 사상이 『태상감응편』과 같은 계통의 善書인 『陰鸞錄文』에서도 보인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개미(蟻)를 구해준 음덕으로 인해 시험에 합격한 例가 있다. (上記의 同書20, 22, 25頁)

## 3. 思想上的 異同(相異点)

## (1) 『명심보감』의 「天」

『명심보감』의 「天」은 이하의 인용문과 같은 형태로 인간의 「運」이나 「命」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天의 관념은 『태상감응편』이나 『功過格』·『陰鷲錄』 등 朱子이전에 편찬된 道家系의 善書에는 직접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sup>13)</sup>

- ① 孟子曰 一飲一擧, 事皆前定,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 萬事不由人計較, 一生都是命安排(『명심보감』「順命篇」2조)
- ② 子曰, 知命之人, 見利不動, 臨死不怨, 得一日過一日, 得一時過一時, 緊行慢行, 前程只有許多路(「順命篇」13조).
- ③ 時來風送藤王閣, 運去雷轟薦福碑(「順命篇」15조).  
시기를 잘 타면(唐대의 王勃)순풍을 만나 멀리 떨어진 藤王閣(唐의 藤王 元嬰이 洪洲都督때 건립)까지 하루 밤에 배로 도착하여, 藤王閣의 序文 詩作대회에 당선하여 천하에 이름을 날린다. 이것에 대해서 運이 사라지면(薦福碑의 탁본을 가지고 오면 큰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난한 寇萊公의 問客 薦福碑의 탁본을 위해 힘든 고생 끝에 도착했지만) 薦福碑는 전날의 번개로 가루가 되어 고생은 물거품이 되었다(大意).
- ④ 痴癡癡家豪富, 智惠聰明却受貧. 年月日時該裁定, 算來由命不由人(「順命篇」16조)
- ⑤ 神童詩云, 壽夭莫非命, 窮通各有時(「安分篇」7조)
- ⑥ 子夏曰, 死生有命, 富貴在天(「順命篇」1조)
- ⑦ 莊子曰, 若人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誅之(「天理篇」16조)

前記와 같이 『명심보감』에서는 「天」이 인간의 善惡에 대해서 그것에 相應한 철저한 상벌을 내리는 한편 아득한 高見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인간의 運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명심보감』의 「天」의 사상 가운데 주로 고대 유교의 「天」의

13) 이하의 자료는 호제호안(小瀨甫庵·1564~1640, 江戸時代 初期의 儒學者)이 『명심보감』의 조문을 인용한 부분을 분석한 拙稿(『日本思想史研究』27号, 1997년 3월 發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관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명심보감』은 그것과 나란히 정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특수성을 가진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論하도록 하겠다.

## (2) 『明心寶鑑』의 政治論

『태상감응편』의 본문에서는 「輕蔑天民, 擾亂國政」을 징계하고 「忠孝友悌, 正己化人」을 권하는 條文이 있지만 이것은 정치에 임하는 방법이나 위정자의 덕을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막연히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상감응편』과 같은 계통인 『功過格』에서도 선행을 쌓으므로 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된 예가 보이지만 정치에 임하는 방법은 쓰여져 있지 않다.<sup>14)</sup> 이것에 반해 『명심보감』에서는 바람직한 정치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를 『명심보감』에서 발췌하여 이하 세 부분(a. 爲政者의 政治적인 姿勢, b. 政治의 方法, c. 君子의 道를 論함)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 a. 爲政者의 政治적인 姿勢

- ①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政治篇」14조).
- ② 孔子曰,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政治篇」18조)
- ③ 性理書云, 教人者, 養其善心, 而惡自消. 治民者, 導之敬讓, 而爭自息(「入教篇」8조)
- ④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清, 曰慎, 曰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 童蒙訓曰, 當官者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

14) 이시가와 우메지로(石川梅次郎) 前掲書, 21頁 참조.

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童蒙訓曰, 事君如事親, 事官長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群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 然後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治政篇』3條이하).

- ⑤ 子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治政篇』13조)
- ⑥ 子貢曰, 位尊者德不可薄, 官大者政不可欺 (『治政篇』16조)
- ⑦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安分篇』18조)
- ⑧ 有福莫亨盡, 福盡身貧窮, 有勢莫使盡, 勢盡冤相逢. 福兮常自惜, 勢兮常自恭. 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 (『省心篇』76조)

위정자=民衆의 지도자에게 몸가짐과 마음가짐, 언행 등을 항상 바르게 하고信義와 관용을 베풀며 공정하게 백성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論하고 있다. 함부로 권력의 위세를 휘두르지 말고 위정자의 자기수양이야말로 정치적 안정과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b. 政治의 方法

- ① 禮云, 爲君止於敬, 爲父止於慈, 爲子止於孝, 爲朋止於信. 若爲斯理, 可以爲政理乎 (『명심보감』 『立教篇』9조)
- ② 安不可忘危, 治不可忘亂. 書云, 制治於未亂, 保邦於未危, 預防其患也 (『省心篇』35조)
- ③ 神宗皇帝御製, 遠非道之財, 戒過度之酒. 居必擇隣, 交必擇友. 嫉妬勿起於心, 讒言勿宣於口. 骨肉貧者莫疎, 他人富者莫厚. 克己以勤儉爲先, 愛衆以謙和爲首, 常思已往之非, 每念未來之咎, 若依朕之斯言, 治家國而可久 (『省心篇』154조)
- ④ 子曰, 不教而殺, 謂之虐, 不戒視成,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治政篇』11조)
- ⑤ 劉安禮問臨民, 明道先生曰, 使民各得輸其情, 問御史, 曰, 正己以格物 (『治政篇』8조)
- ⑥ 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正己篇』

## 93조)

여기에서는 위정자의 마음가짐과 정치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非道德의인 財物이나 過飲을 피하고 과거와 미래의 죄나 허물을 생각하며 항상 亂危(安不可忘危, 治不可忘亂)의 걱정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행하는 것을 논하고 있다.

이 내용은 江戶時代 전기의 유학자 오제호안(小瀨甫庵·1564~1640)이 『明意寶鑑』·『政要抄』에 많이 인용한 부분이기도 하다.

## c. 君子의 道를 論함

- ① 子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明心寶鑑』「治政篇」17조)
- ②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貧, 泰而不驕, 威而不猛 (『治政篇』19조)
- ③ 孟子曰, 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 (『治政篇』20조)
- ④ 書云, 木以繩直, 君以諫正 (『治政篇』21조)
- ⑤ 抱朴子云, 迎斧鉞而諫, 據鼎而盡言, 此謂忠臣也. 忠臣不怕死, 怕死不忠臣 (『治政篇』22조)
- ⑥ 顏子曰, 君子見毫釐之善, 不可傾之, 行有纖之惡, 不可爲之 (『繼善篇』21조)
- ⑦ 君子愛財, 取之有道, 君子憂道, 不憂貧, 君子謀道, 不謀食 (『存心篇』42조)
- ⑧ 諸葛武侯戒子書曰, 君子之行, 靜以修身, 儉以養德. 非澹泊無以明志, 非寧靜無以致遠 (『勸學篇』22조)
- ⑨ 范忠宣公誡子弟曰, (中略) 以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 恕人, 不患不到聖賢地位也 (『存心篇』6조)

君子로서 자신의 행함과 섬김, 백성을 부양하는 길을 논하고 있다. 군자는 항상 끈고, 諫言으로 임금을 바르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작은 不善이나 不義이라 해도 행해서는 안 된다. 또 무턱대고 재물과 음식을 탐해서는

좋지 않다고 하는 군자의 바람직한 마음과 언행·정직·정의 등을 논하고 있다.

『명심보감』에서는 위와 같이 「위정자가 정치에 임하는 자세」·「정치하는 방법」·「군자의 도」를論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정자에 대해 정치를 하는 방법을 논한 점이 다른 勸善書(『태상감응편』등)와는 다른 『명심보감』의 특징이다. 한편 『태상감응편』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위정자를 대상으로 정치하는 자세나 정치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명심보감』·『태상감응편』의 사상적 차이가 인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은 같은 善書이면서 그 사상·내용에는 중요한 상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兩書의 일본에 있어서 수용방법의 相異와도 연결된다. 이하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의 수용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4. 兩書의 日本에서의 受容上的 比較

먼저 『명심보감』부터 고찰하도록 하지만 일본의 『명심보감』의 사상과 그 수용에 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하고 『태상감응편』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 (1) 『明心寶鑑』의 傳來와 普及

일본에 있어서 『명심보감』은 五山僧侶인 도요 에이초(東陽英朝·1428~1504)의 『禪林句集』과 1593년 선교사 하비안이 간행한 『天草版金句集』에 『명심보감』의 條文이 인용되었다. 이후<sup>15)</sup> ①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1561~

15) 중세 말의 戰亂이 끝나고 德川政權이 확립된 후 사회질서가 幕府體制하에서 재편성

1619)의 『寸鐵錄』 ②오제호안(小瀨甫庵·1564~1640)의 『明意寶鑑』·『政要抄』·『童蒙先習』 ③하야시 라잔(林羅山·1583~1640)의 『童蒙抄』 ④加賀藩主였던 마에다 츠나노리(前田綱紀·1643~1724)의 『명심보감』이해 및 소장. 또 加賀藩의 藩士 아사카 큐케이(淺香久敬)의 『徒然草々大成』에 인용 및 ⑤노마산치꾸(野間三竹·1608~1676)의 『北溪含毫』 ⑥아사이 료이(淺井了意·1612~1691)의 『浮世物語』·『堪忍記』 ⑦가이바라 에케켄(貝原益軒·1630~1714)의 『和俗童子訓』·『大和俗訓』 ⑧오타 젠사이(太田全齊·1759~1829)의 저작이고 寬政 9년의 序를 가진 『諺苑』 ⑨1661(寬文 元年)년에 간행된 작자미상의 假名草子 『似我蜂物語』 ⑩미야카와 미치사따(宮川道達·貞享5年, 1688년 頃沒)의 『訓蒙要言故事』 ⑪戲作者·浮世繪師로 알려져있는 산토 쿄텐(山東京傳·1761~1816)의 『昔話稻妻表紙』 ⑫오타 난뵘(太田南畝·1749~1823)의 『南畝文庫藏書目』(太田南畝全集 제19권, 岩波書店 1989年 434頁) 등에 『명심보감』의 책명과 조문이 보인다.<sup>16)</sup>

또 『명심보감』의 「和刻本」간행은 1626(寬永三)년부터이다. 『江戸時代 書林出版 書籍目錄集成』에 의한 「和刻本」의 간행기록은, 寬文(1661~1673년) 年間에서 正徳五(1715)년까지로 이 『江戸時代 書林出版 書籍目錄集成』에 의하면 京都·大坂·江戸에서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江戸時代 전기를 중심으로 『명심보감』관련 인용 서적 및 『명심보감』의 「和刻本」이 다수 간행되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이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관련 教化書を 편찬하였지만 『명심보감』 그 자체의 註釋書는 거의 없다. 이것에 대해서 『태상감응편』은 이하와 같다.

---

되기 시작한 17세기에 이르러 善書關聯書籍이 일본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書籍으로 『帝鑑圖說』(1606년 刊行)의 古活字版을 들고 있다.

16) 拙稿 「日本『明心寶鑑』受容에 關하여」(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編 『韓國의 哲學』第27号 1999년 12월 241-244頁) 참조.

## (2) 『太上感應篇』의 傳來와 普及

『태상감응편』이 일본에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보급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그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상감응편』의 내용은 크게 「총론」·「선행」·「악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태상감응편』의 본문을 소개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본문의 내용은 일본 도호쿠대학 카노문고(狩野2-3765-1)에 소장하고 있는 판본(『太上感應篇倭註』全 1798년·寬政10 刊行)으로서, 본문 밑에 알기 쉬운 일본어로 번역되어있는데 본문의 漢文만 발췌해보기로 하겠다.

## 太上感應篇

太上曰, 禍福無門, 惟人自招, 善惡之報, 如影隨形,  
是以天地有司過之神, 依人所犯輕重, 以奪人算,  
算減則貧耗, 多逢憂患,  
人皆惡之, 刑禍隨之, 吉慶避之, 惡星災之, 算盡則死,  
又有三臺北斗神君, 在人頭上, 錄人罪惡, 奪基紀算,  
又有三尸神, 在人身中, 每到庚申日, 輒上詣天曹, 言人罪過,  
月晦之日, 竈神亦然,  
凡人有過, 大則奪紀, 小則奪算, 其過大小, 有數百事,  
欲求長生者, 先順避之,  
是道則進, 非道則退, 不覆邪徑, 不欺暗實, 積德累功, 慈心於物,

忠孝友悌, 正己化人, 矜孤恤寡, 敬老懷幼,  
昆虫草木, 猶不可傷, 宜憫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  
見人之得, 如己之得, 見人之失, 如己之失,  
不彰人短, 不衒己長, 遏惡揚善, 推多取少,  
受辱不怨, 受寵若驚, 施恩不求報, 與人不追悔, 所謂善人,  
人皆敬之, 天道佑之, 福祿隨之, 衆邪遠之,  
神靈衛之, 所作必成, 神仙可冀,  
欲求天仙者, 當立一千三百善, 欲求地仙者, 當立三百善,

苟或非義而動, 背理而行, 以惡爲能, 忍作殘害,  
陰賊良善, 暗侮君親, 慢其先生, 叛其所事,

誑諸無識，謗諸同學，虛誣詐僞，攻訐宗親，  
 剛強不仁，狼戾自用，是非不當，向背乖宣，  
 虐下取功，諂上希旨，受恩不感，念怨不休，  
 輕蔑天民，擾亂國政，賞及非義，刑及無辜，  
 殺人取財，傾人取位，誅降戮服，貶正排賢，  
 凌孤逼寡，棄法受賂，以直爲曲，以曲爲直，  
 入輕爲重，見殺加怒，知過不改，知善不爲，  
 自罪引他，壅塞方術，訕謗聖賢，侵凌道德

射飛逐走，發蟄驚棲，填穴覆巢，傷胎破卵，  
 願人有失，毀人成功，危人自安，滅人自益，  
 以惡易好，以私廢公，竊人之能，蔽人之善，  
 形人之醜，訐人之私，耗人貨財，離人骨肉，侵人所愛，助人爲非

逞志作威，辱人求勝，敗人苗稼，破人婚姻，  
 苟富而驕，免無恥，認恩推過，嫁禍賣惡，沽買虛譽，  
 包貯險心，挫人所長，護己所短，乘威迫脅，縱暴殺傷，

無故剪裁，非禮烹宰，散棄五穀，勞攘衆生，  
 破人之家，取其財寶，決水放火，以害民居，  
 紊亂規模，以敗人功，損人器物，以窮人用，  
 見他榮貴，願他流貶，見他富有，願他破散，見他美色，起心私之

負他貨財，願他身死，干求，不逐，便生呪恨，  
 見他失便，便說他過，見他體相不具，而笑之，  
 見他才能可稱，而抑之，埋壘厭人，用藥殺樹，恚怒師傅，

抵觸父兄，強取強求，好侵好奪，擄掠致富，  
 巧詐求遷，賞罰不平，逸樂過節，苛虐其下，恐嚇於他，  
 怨天尤人，訶風罵雨，鬪合爭訟，妄逐朋黨，用妻妾語，違父母訓

得新忘故，口是心非，貪冒於財，欺罔其上，  
 造作惡語，讒毀平人，毀人稱直，罵神稱正，  
 棄順効逆，背親向疎，指天地以証鄙懷，引神明而鑑猥事，  
 施與後悔，假借不還，分外營求，力上施設，  
 淫慾過度，心毒貌慈，穢食餒人，左道惑衆，

短尺狹度, 輕秤小升, 以偽雜眞, 採取奸利,  
壓良爲賤, 謾罵愚人, 貧婪無厭, 咒詛求直, 嗜酒悖亂,

骨肉忿爭, 男不忠良, 女不柔順, 不和其室, 不敬其夫,  
每好矜誇, 常行妒忌, 無行於妻子, 失禮於舅姑, 輕慢先靈,

違逆上命, 作爲無益, 懷挾外心, 自咒咒他, 偏憎偏愛,  
越井越竈, 跳食跳人, 損子墮胎, 行多隱僻,  
晦臘歌舞, 逆旦号努, 對北涕唾, 及溺對竈吟詠, 及哭,

又以竈火, 燒香, 穢柴作食, 夜起裸露, 八節行刑,  
唾流星, 指虹霓, 輒指三光, 久視日月, 春月燎獵, 對北惡魔, 無故殺龜打蛇,  
如是等罪, 司命隨其輕重, 奪其紀算, 算盡則死, 死有余責, 乃殃及子孫,

又諸橫取人財者, 乃計其妻子家口以當之, 漸至死喪,  
若不死喪, 則有水火盜賊, 遺亡器物, 疾病口舌諸事, 以當妄取之直,  
又枉殺人者, 是易刀兵, 而相殺也, 取非義之財者, 譬如漏脯求飢, 鴆酒止渴, 非  
不暫飽, 死亦及之,

夫心起於善, 善雖未爲, 而吉神已隨之, 或心起於惡, 惡雖未爲, 而凶神已隨之,  
其有曾行惡事, 後自改悔, 諸惡莫作, 衆善奉行, 久久必獲吉慶, 所謂轉禍爲福也.  
故吉人語善視善行善, 一日有三善, 三年天必降之福,  
凶人語惡視惡行惡, 一日有三惡, 三年天必降之禍, 胡不勉而行之.

以上の 本문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總論」에서는 禍福은 자기 자신이 초래하는 것으로, 선악의 응보는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다. 天·地 사이에는 司過의 神이 있어 죄의 大小에 의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 司過 神의 종류에는, 三臺·北斗·三尸·竈神 등이 있고, 인간이 大罪를 범하면 300일의 수명을 빼앗는다. 또 경죄를 범하면 3일의 수명을 빼앗는다. 神은 인간행위를 아주 상세히 감시하여 인간의 악한 행위의 수에 따라서 早死시키므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善行」은 하늘의 선인(天仙)이 되기 위해서는 1300선을 쌓아야 하고 땅의 선인(地仙)이 되기 위해서는 300선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만물을 慈愛하고 「忠孝友悌」로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과부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

다. 또 타인의 선을 즐거워하며 타인의 위독함을 구한다.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하며 타인을 교화하는 등,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타인(약자)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惡行」은 非義에 의해 움직이며, 악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지 않는 過失을 고치지 않는다. 同學을 비방하며, 친척을 비난한다. 「剛強不人」으로 아래 사람을 학대하며 은혜를 모른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君親을 업신여기며 스승을 바보 취급하며, 성현을 비방하고 도덕을 어긴다. 국정을 혼란케 하며 非義를 칭찬하며 賢人을 배척하며 법에 등을 돌리며 賂物(이익을 꾀하기 위해 권력가에게 남몰래 상품을 줌)을 받는다. 잔인한 행위를 하고, 鳥獸를 죽인다.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며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취하며 降伏한 자를 죽인다.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여 실패를 빌며, 타인의 재능이나 선행을 숨긴다. 타인의 결점을 폭로하고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며 타인을 욕되게 하여 이기려고 하며 타인의 작물에 손실을 준다. 결혼을 방해하며 타인의 집을 부수어 그 재산과 보물을 취한다. 방화하여 사람들의 집을 손실케 한다.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며 妻妾이 하는 말만을 듣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神」을 경시하며 음욕을 좋아하며 빛나간 길로 사람을 眩惑시킨다. 기준을 규정보다 짧게 하고 측정을 보통보다 가볍게 하며 남자는 忠良하지 않고 여자는 柔順하지 않는다.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질투하며 墮胎를 한다. 우물 위를 건너 넘거나 술 위를 건너 넘으며 부뚜막 앞에서 운다. 밤에 옷을 입지 않고(裸體) 지내며 북쪽을 향해 침을 뱉는다. 八節에 형벌을 행한다. 이유도 없이 거북이나 뱀을 죽이는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와 같이 『태상감응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勸善의 實例를 들고 있다. 이것은 『태상감응편』이 『명심보감』과 같이 추상적이 아닌 세속의 일상적인 생활을 근거로 구체적인 응보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태상감응편』은 언제 일본에 전래되어 어떻게 보급되었는가 『태상감응편』의 처음의 전래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산조니시 사네타카(三條西實隆·1455~1537)<sup>17)</sup>의 일기 『實隆公記』이다. 1494(明應三)년 1월 30일 條에 道

17)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幕府初期)의 將軍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 尊氏)가 겐무

家の 書籍으로서 새롭게 전래된 『태상감응편』을 庚申의 날에 밤늦게까지 흥미롭게 읽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sup>18)</sup>

太上感應靈篇上新渡來書，道家書歟，有興物也，此等持來，今夜庚申，電覽之，半更之後就寢。

『太上感應篇』의 「和刻本」은 1680년 南部 草壽刊行的 『太上感應編俗解』(2권)에서, 1849년 간행의 『太上感應編譯文』까지의 169년간, 여덟 종류의 판본이 간행되었다.<sup>19)</sup>

이상에서 兩書의 공통점은 室町時代에 전래하여 江戸時代에 활발히 읽혀진 서적으로 출판장소도 양서가 동일하게 上方(오사카·교토)이나 江戸(도쿄) 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태상감응편』의 일본에의 보급을 『명심보감』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① 『명심보감』의 최초의 「和刻本」은 1626년이다. 『태상감응편』의 「和刻本」은 1680년이다. 따라서 『명심보감』은 『태상감응편』보다 약 50년 이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1715년 이후 『명심보감』의 「和刻本」의 출판은 끊어졌다. 이에 비해 『태상감응편』은 그 후도 출판을 계속하여 1849년까지의 판본이 남아 있다. 『명심보감』보다 10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版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수용의 실태나 「和刻本」의 출판상황으로부터 『명심보감』이 주

시키 모꾸 <建武式目> 을 制定한 1336년 또는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征夷大將軍이 된 1338년부터 15代 將軍 아시카가 요시아키 <足利義昭> 가 오다 노부나가 <織田信長> 에 의해 京都로부터 追放되어 무로마찌 幕府가 滅亡한 1573년까지의 約240년간을 말함)의 公卿·歌人으로서 和歌를 잘하며, 무로마찌시대 후기의 戀歌師인 이이오 소우기(飯尾宗祇)로부터 古今傳授를 받았다. 能書에도 알려져 和漢書籍 및 有職故實에 능통한 유명한 학자이다. 1506(永正3)년에 內大臣이 된 상층귀족 정치가이기도 하다

18) 以下 『태상감응편』에 관해서는 시모이데 세키요(下出積與)씨의 「江戸時代에 있어서 農民과 善書 - 『太上感應篇靈驗』에 대해서 - 」(笠原一男博士 還曆記念會編 『日本宗教史論集』下卷, 吉川弘文館, 1976, 252頁) 의 조사를 참고한 부분이 많다.

19) 이 가운데 1839(天保10년)의 『太上感應篇靈驗』은 1934(昭和9)년에 재 판본 되었다. 또 『陰騭文』은 1711년 간행의 『通俗陰騭文』(1卷)을 시작해서 1836년 간행의 『陰騭文』(1卷)까지, 125년 사이에 여섯 종류의 板本이 간행되었다.

로 江戸時代 전기에 수용되었고 『태상감응편』은 중기 이후에 수용되어 특히 후기에 왕성하게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용하는 측과 출판하는 측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출판자 측에서 생각하면, 『명심보감』은 幕府의 儒官이나 諸藩의 유학자 등의 상급지식인의 이해에 의해 관련서적이 편찬되었다. 이에 비해 『태상감응편』은 재야의 지식인에 의해 註釋에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③ 또 내용면에서 보면 『명심보감』이 유학의 四書 등을 폭 넓게 적용하였다. 이에 비해 『태상감응편』은 태상의 설(太上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④ 독자 측을 보면 이미 南宋의 眞德秀의 『感應篇序』에도 善書인 感應篇은 「凡民」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道家의 警世의 서적이다」고 칭하고 있다.<sup>20)</sup> 또 『태상감응편』의 陳天昌의 序文에 「感應篇은 愚夫愚婦에게 설명한 書籍」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태상감응편』의 출판목적은 재야의 지식인이 민중 일반에게 도덕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카이 타다오(酒井忠夫)씨에 의하면 善書는 교화 대상으로서 농민층을 중심으로 민중일반을 중시하며 오로지 인간으로서(농민층을 帝王·百僚·貴戚 등으로 나누지 않고 동등한 것으로) 善惡·功過의 행위에 따르는 禍福을 개인의 주체적 책임을 근거로 해서 論하고 있다.

단지 일본에서 출판된 『태상감응편』의 판본 가운데는 呪術的인 부분이 있다. 이하는 일본에서의 『태상감응편』의 수용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 (3) 『太上感應篇』의 受容方法

『태상감응편』의 민중적 성격의 근거로서 근세 일본에서는 『태상감응편』이 농촌에서 출판된 例를 들 수 있다.

信濃國(現 長野縣)의 木曾谷에서 어느 농민의 妻가 1828(文政11)년에 『太

20) 사카이 타다오(酒井忠夫)씨의 『道教의 綜合的 研究』(國書刊行會, 1977년, 381 頁) 참조.

上感應篇靈驗)을 자가 출판하여 지역 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판본은 그 지방의 北辰宮에 奉納한 사실이 있다.

그 내용은 본문을 짧게 정리하여 「感」은 움직이는 것이고 「応」은 응보라고 하여 『감응편』에서 논하는 善을 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大明の 錢植徴という人、頭痛を病たるが、願を發して、感心篇三百篇を書写せんとて、筆を取ケれば、其日より頭痛忽癒たり。馮標という人、傷寒を病て、既に死んとしけるに、其姪哀て、此病を癒し給へ、感心篇万部を、人に施んといのりケれば、其夜の夢に、文昌君枕上に立給ひて、汝が病愈たりと宣ふと夢見て、翌日より病忽癒たり。其外謝紹銓という人ハ、子の無きを哀て、感心編二百枚を人に施して、子を持、或ハ感心編を施して、福を得、官にすすみ、寿命を延、如意満足する輩無量なり。(『太上感應篇靈驗』文政11年 戊子、信濃國筑摩郡 千野又右衛門)

大明의 錢植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통에 시달렸는데, 낫기를 원하여, 感應篇 三百篇을 손으로 베끼려고 붓을 잡으니, 그날부터 두통이 곧바로 낳았다. 馮標라고 하는 사람은, 동상 병에 걸려 이미 죽으려고 할 때 그 조카가 가엾게 생각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感應篇 万部를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기도한 즉 그날 밤 꿈에 文昌君이 枕上에 나타나 자네의 병이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 다음날 병이 곧바로 나았다. 그밖에 謝紹銓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感心編 二百枚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는 感心編을 베풀고 복을 얻어 관에 나가 수명을 연장하는 등, 원하는 대로되어 만족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 (『太上感應篇靈驗』文政11年 戊子、信濃國筑摩郡、千野又右衛門)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善을 권장하여 『대상감응편』을 널리 전하는 것이 선이며, 바로 좋은 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21)</sup> 특히 사람의 善의 기원은

21) 쿠보타다노리(窪徳忠)『道敎白話』(講談社, 1989년)에 의하면 清代의 유명한 儒家로 易學에 능통한 惠棟은 모친의 병이 낫지 않자, 만약 모친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대상감응편』의 註釋을 만들겠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빨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神에게 祈願을 하자 금방 병이 나았다고 한다. 惠棟은 이 확실한 靈驗을 알고 곧바로 註釋을 써 『대상감응편』을 완성했다고 한다(51頁).

또 揚起元(揚復所, 證學編, 卷四)이 『대상감응편』의 序文을 중심으로 해서 『감응편』을 읽고 이것을 受信奉行하게 하여, 복을 받게 된다면 法施의 공덕은 끝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中國善書의 研究』252頁).

이시카와 우메지로(石川梅次郎) 『陰鷲錄』(明德出版社, 1970년)의 『陰鷲錄』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신비적 영험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다.

- ② 此書の靈驗、筆に尽し難し。唐土にてハ諸人所願あれば、梓潼君に祈りて此書を求て人に施し、或ハ書写して、人にあたへて、善をすすむるに所願かなはずといふ事なし(『太上感應篇靈驗』<sup>22)</sup>).

이 書籍의 靈驗은 붓으로서 다 표현하기 어렵다. 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으면, 梓潼君에게 빌고 이 서적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혹은 글씨를 베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권유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한다(『太上感應篇靈驗』).

### ③ 遏惡揚善

昔唐土ノ人ニ日々是ヲ計ントシ惡ヲ思フトキハ黑豆ヲカゾヘ善ヲ思フトキハ白豆ヲ計タレバ次第ニ後々ハ白豆多クナリ七年計ヘレバ白豆計ニナルト云コトアリ此人モ五十歲迄子ナキ人ナレドモコノ蔭德ニテ其妻四十五歲ニシテ男子ヲ一人設ケントナリ(『太上感應編和註全』 12頁)

옛날 당나라 사람이 날마다 선을 계산하려고 악을 생각 할 때는 검은콩을 세고, 선을 생각 할 때는 흰콩을 계산하니 후에는 점점 흰콩이 많게 되어 7년간 계산해보니 흰콩만을 세게되었다. 이 사람도 오십 살까지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陰德으로 인해 그의 妻가 마흔 다섯이 되어 남자아이를 하나 얻게되었다(『太上感應編和註全』 12頁)

이 자료는 『태상감응편』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많은 靈驗을 자아낸다고 하여 善에 대한 응보의 예로서 자식을 얻은 例로서, 이것은 앞의 ①과 같은 내용이다. 또 『태상감응편』에서는 不老長壽가 역설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不老長壽에는 관심이 없고 자식을 얻는 것이나 병이 낫는 등 현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래 不老長壽의 상징인 仙人이 목표로 되어지고 있지만 이하에서는 일본 『태상감응편』 和文해설에서는 「聖人」(天仙)·「賢人」(地仙)이 목표로 변화되어 있다.

는 덕을 쌓음으로 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출세도 하고 병도 나았다는 例를 들었다(19頁). 또 음덕을 쌓음으로 인해 자식이 3명 태어나고 드디어는 高第에 오른 例를 들고 있다(22頁).

- 22) 이것과 類似한 내용이 前掲의 『中國善書의 研究』(430頁)와 1798(寬政10)년 石龍子撰 『太上感應篇 和註全』의 註釋에도 있다.

④ 神仙可冀, 欲求天仙者, 当立一千三百善, 欲求地仙者, 當立三百善.

天仙トハ則聖人ノコト也 一千三百ノ善ト云ハ此感應篇ノ通リヲ悉ク行フ人ヲ云也. 地仙ト云ハ賢人ノコト也感應篇ノ中三百ノ善ヲ行フ人ヲ云也(『太上感應編和註全』 28頁)

天仙이라고 하는 것은 즉 聖人을 말한다. 一千三百의 善이라고 하는 것은 感應篇의 가르침대로 모두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地仙이라고 하는 것은 賢人을 말한다. 感應篇 가운데 三百의 善을 行하는 사람을 말한다.(『太上感應編和註全』 28頁)

『명심보감』에서는 자기 자신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에 반해 『태상감응편』에서는 자신의 선악의 결과를 察知할 수 있다. 더구나 善을 전하는 것, 『태상감응편』을 보급시키는 것에 의해 소원이 성취되는 등 선행을 쌓는 것에 의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凡人有過, 大則奪紀, 小則奪算, 其過大小, 有數百事. 人ノナス處ノ惡事ニ因テ命ニ長短出來也 是天ヨリ奪ウニモアラズ 其身ノ惡事是ヲ滅スル也 (『太上感應編和註全』12頁)」

「사람이 행하는 악행에 의해서 수명의 장단이 결정된다. 이것은 天이 빼앗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악행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다.(『太上感應編和註全』12頁)」

이러한 점이 江戸時代 後期 서민의 現世利益主義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 밖에 『태상감응편』의 수용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예가 先行 연구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먼저, 기무라 미츠노리(木村光徳)編著 『日本陽明學派의 研究 - 藤樹學派의 思想과 그 資料』(明德出版社)에 의하면 藤樹문하생들이 『태상감응편』을 拜誦하며 조상의 靈前에 올린 적이 있다.

① 후지 케이잔(淵岡山・1644~1686, 通稱四郎右衛門 또는 源兵衛라고도 한다. 仙臺에서 태어남)이 『감응편』을 읽은 사실이 있다.(木村光徳編著의 前掲書 29, 30頁)

② 會津학파는 회진학과 道敎의 감응편을 배송했다. 그리고 그들은 藤樹도『태상감응편』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山崎半弥는 父親의 一周忌의 영전에 『태상감응편』을 奉讀했다. 또 京都의 후찌 케이잔(淵岡山)이나 岡山학파, 쿠마모또(熊本)지방의 藤樹학파가 『태상감응편』을 배송했다(木村光德編著의 前掲書 297頁).

④ 쿠마모또(熊本)학파인 야마자키 카츠마사(山崎勝政)의 「祭先考文」에 「謹自書考經与感応篇而憲備于靈前」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마자키 카츠마사(山崎勝政)는 藤樹나 岡山の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木村光德編著의 前掲書 297頁).

다음으로 窪德忠氏의 『道敎史』(山川出版社, 1977년, 414頁)에 의하면 ① 오키나와현(沖繩縣)에는 1841년에 기사마 세이젠(喜舍場盛元)이라는 사람이 和譯한 『太上感應篇 大意』가 2次世界大戰前까지 지식인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② 또 大阪에서도 자기 집을 「修真觀」이라 이름지어, 善書類를 직접 인쇄하여 동호인들에게 배포한 하세가와 노부(長谷川廷)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③ 그 밖에 히로세 단소(廣瀬淡窓·1782~1856, 江戸時代 후기의 折衷學派의 儒學者) 등 일상생활을 善書의 정신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

## 5. 맺음말

① 『명심보감』의 「계선편」은 『태상감응편』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으며, 勸善을 설명하는 방법도 『태상감응편』과 동일하다. 그 내용은 善行을 하면 좋은 보답을, 惡行을 하면 나쁜 응보가 있다고 하는 善惡行爲에 대한 정확한 응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의 勸善思想이 개인의 도덕을 기준으로 하여, 넓게는 사회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명심보감』은 인간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 「天」이 직접 相應하는 응보를 내

린다. 그러나 『태상감응편』에서는 인간의 주변 신들(三臺北斗神君·司過의 神·三尸神·竈神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인간의 罪狀을 監察하여 上位의 「神」에게 보고하면 상위의 「神」은 그 監察 결과를 기준으로 징계를 내린다. 즉 상위의 「神」이 인간의 「命」의 紀算을 빼앗는다. 한편 『명심보감』의 「天」은 인격신의 성격을 나타내어, 「天」에는 분노·罰이 있으며 인간의 惡·不善·죄에 대해서 직접 무서운 벌의 응보를 내린다. 인간의 運·命이 「天」에 맡겨져 인간의 노력만으로 부귀빈천이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명심보감』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어구를 들어 특히 개인의 도덕생활을 비롯하여 위정자에 대한 정치의 要諦 등 위정자에 대한 교훈을 論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이 천도의 권위를 중심으로 勸善을 論한 데 비해 『태상감응편』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보다 중시되고 있다. 「神」이 인간의 선악행위에 대해 상벌을 부여할 때의 기준은 인간 자신의 주체적인 省察(夫心起於善, 而吉神已隨之, 或起於惡, 而凶神已隨之)과 자신의 선악의 행위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善에 대한 노력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태상감응편』에서는 『명심보감』과 같이 「天」과 관련지은 「정치론」·「知足安分」의 관념은 없고 오로지 개인의 선악·功過의 결과에 의한 수명의 장단이 강조되어져 있다.

③ 「善」의 결과로서 『명심보감』에서는 위정자는 자신의 「부귀빈천」·「運」을 바라지 않고 윤리도덕으로서의 「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로 위정자는 민중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 넓게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된다. 이에 반해 『태상감응편』에서는 「善」을 쌓는 것에 의해 현실적 이익이 부여되지만, 최종목적은 仙人이 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의 형태를 한 「神」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sup>23)</sup> 『태상감

23) 일반적으로 善書는 「勸善懲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심보감』과 『태상감응편』의 양서는 같은 부류의 書籍이지만 양서의 사상적 相異는 분명하다. 그 차이점이 생긴 하나의 이유로서 『태상감응편』은 朱子 이전의 宋代 초기에 편찬된 書籍이고 『명심보감』은 朱子 이후의 明代에 편찬된 書籍이라는 추측이다.

중국의 宋代에는 朱子의 등장에 의해 신유학이 繼承·發展되는 가운데 종래의 지식인 중심의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한 학문이었던 儒學이 일반 지식인이나 서민 사 이로 확산되어 생활 면에서 「孔子」·「孟子」의 道가 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이 儒學

응편』은 중국 송대에 유행했고 명말·청초에 주자학의 모순과 한계가 표면에 드러남과 동시에 다시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江戸시대 민중을 중심으로 『태상감응편』이 받아들여져 인기를 불러일으켰지만 특히 에도시대 후기에는 『태상감응편』의 三尸說 등은 庚申과 연결되어 신비적인 현세 이익적 신앙으로서 민중에 게도 널리 정착했다. 그에 비해 『명심보감』은 윤리·도덕을 논한 서적으로 『태상감응편』과 같이 주술로서 민중간에 정착할 만한 사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 『태상감응편』과 『명심보감』의 비교를 기준으로 일본에 있어서 수용상을 사상사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兩書는 사상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서적이므로 그 사상적 차이가 근세 일본에서는 전기와 후기, 지식인과 서민이라고 하는 수용에 있어 다른 차이점을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의 사회적 기반이 다져지는 가운데 明代에는 洪武帝가 유학적 발상으로 善書의 유포를 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洪武帝는 儒學的 견지에서 『태상감응편』 등의 선서에서 보이는 神仙思想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도 『명심보감』을 사회에 널리 보급시키도록 권장하였다(『明實錄』萬曆 15년). 이는 『명심보감』의 사상이 朱子 이전에 출판된 他的 善書와는 상이하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洪武帝 때 神仙사상의 不老長壽에 대한 비판적인 言辭를 『明實錄』의 관련부분으로부터 拔萃하고자 한다.

「洪武元年 閏七月 丁卯의 條.

上謂侍臣宋濂等曰, (中略) 至如奏始皇漢武帝, 好尙神仙以求長生, 疲精勞神, 卒無所得, (中略) 以朕觀之, 人君能清心寡欲勤于政事, 不作無益以害有益, 使民安田里衣食, 熙熙皞皞而不自知, 此卽神仙也。」

「洪武三年 十二月 己巳의 條.

上頗聞公侯中有好神仙者, 悉召至諭之日, 神仙之術以長生爲說, 而又謬爲不死之藥以欺人, 故前代帝王及大臣多好之, 然卒無驗. (中略) 人能懲忿窒慾, 養以中和, 自可延年. 有善足稱, 名垂不朽, 雖死猶生, 何必枯坐服藥, 以求不死, 况萬無此理, 當痛絕之.」(酒井忠夫 『中國善書의 研究』232, 233頁 참조).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위정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주자학이 뿌리 깊어 내림으로 인해 조선시대 말기에 「朱子學」의 모순이 명확해진 상황 하에서도 주자학 이외의 「陽明學」 등의 발전(중국 明末·清初나 일본의 江戸時代 중기 이후에 비해)은 보기 힘들다. 善書에 있어서도 明대의 『명심보감』이 유학서로서 수용된 반면, 道교서로서의 『태상감응편』은 『명심보감』에 비해 그다지 읽혀지지 않았다.